

## 기관·기관지 악성종양에 대한 광역학치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폐센터

김형렬·강은희·정현욱·윤호일·이재호·전상훈·이춘택·성숙환

### 서론

광역학치료는 광감작제가 빛과 산소에 의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단일한 산소와 이에 의해 유발되는 자유라디칼이 환자에게 아무런 고통 없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차세대 치료법이다. 기관 및 기관지 종양도 좋은 적응이 되며, 초기 점막 질환에 대한 근치목적의 치료와 종양에 의한 기관지폐쇄를 호전시키기 위한 보존적 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대상 및 방법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폐센터에서는 2004년 6월부터 2008년 4월까지 10명의 기관 혹은 기관지 종양 환자에 대하여 광역학치료를 시행하였다. 전례에서 광감작제로 Photofrin을 사용하였으며, 6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근치 목적으로, 4명의 환자에서는 보존적 목적의 광역학치료를 시행하였다. 근치 목적으로 시술 받은 환자들은

4중암을 포함하여 다중암, 폐기능 불량 및 수술 후 재발례였다.

### 결과

근치목적으로 치료한 6명 중 2명이 시술 후 28개월과 7개월에 사망하였고, 4명은 시술 후 최장 3년까지 재발 소견 없이 추적 진료 중이다. 보존적 목적으로 시술한 4명에서 증상의 개선은 있었으나 3명이 시술 후 8개월, 8개월, 12개월에 사망하였고, 나머지 한 명도 질환이 진행하고 있다.

### 결론

광역학치료는 선택된 환자에서 통증이나 호흡기능 저하 없이 종양선택적 치료가 가능하며, 암 치료의 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겠다.